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보도자료 대체불가 대한민국

보도시점 8. 31.(금) 석간 < 8.31.(금) 배포즉시 >

부산중기청, 「2026년 스스로 프로젝트」 베트남 현지에서 MOU 66건 체결 성과

- 지역 유망 스타트업 20개사, 현지 바이어·투자사와 266회 밋업 및 1,569만 달러 규모 MOU 체결
- PoC 협약 25건 등 현지 실증·사업화로 연계 가능한 글로벌 협력 기반 마련

중소벤처기업부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청일, 이하 부산중기청)은 「2026년 스스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유망 스타트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총 66건 1,569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여 의미 있는 글로벌 진출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올해로 3기를 맞은 「스스로 프로젝트」는 지역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부산중기청과 한국남부발전이 공동 총괄하고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전담하는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으로, 지역 중견기업인 DRB동일과 부산외국어대학교가 협력기관으로 참여했다.

이번 베트남 현지 프로그램은 8월 17일부터 21일까지 베트남 호찌민에서 진행됐으며, 지역 유망 스타트업 20개사가 참여해 ▲B2B 바이어 밋업 ▲InnoEX2026 공동관 ▲오픈이노베이션 ▲찾아가는 바이어 밋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현지 바이어·투자자 및 기업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했다.

현지 프로그램을 통해 참여기업은 바이어·투자사 등과 총 266회의 밋업을 진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총 66건 1,569만 달러(220억원) 규모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업무협약 유형별로는 ▲투자 검토(약 510만 달러) ▲구매·유통(약 493만 달러) ▲실증(PoC, 약 421만 달러) ▲사업·기술 협력(약 145만 달러)로 나타났다. 특히 실증(PoC) 협약이 25건을 차지해 단순한 업무협약을 넘어 현지 실증과 후속 사업화로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베트남 대표 혁신 비즈니스 박람회인 InnoEX 2026에서 스스로 프로젝트 공동관을 운영해 현지 바이어와 투자자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현지 시장에서의 사업 가능성을 확인했다.

글로벌 스타트업 경진대회 Startup Wheel 2026에서는 참여기업 5개사가 Top 30에 선정됐으며, 이 중 '크로스허브'가 최종 TOP5에 올라 결승에 진출하는 성과도 거뒀다.

이와 함께 오픈이노베이션 데이를 통해 베트남에 진출한 국내 대기업 및 계열사와 참여기업 간 협업 가능성을 모색하고, 현지 기업을 직접 방문하는 '찾아가는 바이어 밋업'을 통해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번에 협력기관으로 참여한 DRB동일은 베트남 현지법인에서 실증(PoC) 가능성이 있는 참여기업과 비즈니스 밋업을 진행하여 양사의 기술 협업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증 방안을 논의했다.

이청일 부산중기청장은 "스스로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스타트업들이 현지 바이어와 투자자를 직접 만나 사업기회를 발굴하고, 실제적인 협력으로 이어지는 성과를 만들어 가고 있다"며,

"부산중기청은 앞으로도 지역의 유망 스타트업이 해외시장에서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현지에서 발굴한 협력 기회가 계약과 실증,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후속 지원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부서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	책임자	과 장	김길상 (051-601-5140)
		담당자	주무관	김신자 (051-601-5141)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체불가 대한민국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